

AI 확산 영향에 램 가격 폭등... 상인·소비자 ‘한숨’

D램 4개월 새 6배 올라...금호월드, 새학기에도 한산
조립 PC마저 급등...메모리 공급 부족 내년까지 지속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PC용 D램과 SSD에 이어 GPU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불과 4개월 사이 최대 6배까지 치솟은 가격에 PC 업체 종사자들은 물론, 새학기를 앞두고 전자제품 구매를 계획하던 소비자들까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28일 오전 찾은 서구 금호월드. 평소라면 PC 또는 관련 부품을 사려는 사람으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모습이었다.

금호월드에서 12년째 PC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47)는 “램 가격 폭등은 금이나 주석처럼 한 번씩 생기는 이슈긴 하지만 지금처럼 큰 폭으로 빠르게 오른 건 처음이다”며 “신학기가 멀지 않아 지금이면 새 노트북, PC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을 때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푸념했다.

이어 “그나마 꾸준히 나가던 조립 PC마저도 부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거의 못

팔고 있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PC 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체들은 AI(인공지능) 열풍으로 단가가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일반 D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 등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졌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PC 가격도 함께 급등해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새학기를 앞두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들도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주부 이현경(52) 씨는 “아들이 올해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노트북을 사주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며 “이제 중저가 노트북은 아예 입고도 안 된다고 하고, 중고가도 너무 올라서 살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트북 신제품인 ‘갤럭시북6 울트라’와 ‘갤럭시북6 프로’ 2종을 국내에 출시했다. 갤럭시북6 울트라는 462만~493만원, ‘프로’는 260만~351만원으로 예전 제품보다 가격이 크게 뛰었다.

1년 전 출시한 갤럭시북5 시리즈가 ‘울트라’ 없이 프로 모델만 출시됐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모델 가격 최상단 기준 약 70

만원이 올랐으며, 특히 갤럭시북 프로 모델 출고가가 3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의 노트북 신제품 ‘LG그램 프로 AI 2026’도 마찬가지다. 인텔 프로세서 U5, 16GB 메모리, SSD 512GB를 탑재한 16인치 모델 출고가는 314만원이다. 1년 전 모델보다 50만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다.

조립 PC 가격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PC용 범용 D램(삼성전자 DDR5-5600 16GB) 최저 가격은 작년 9월 6만9246원에서 27일 기준 38만3870원까지 4개월 만에 30만원이 넘게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콩 소재 하드웨어 제조사 조텍(ZOTAC)의 국내 법인 조텍코리아는 27일 자사 쇼핑몰 공식자향을 통해 “지금 상황이 앞으로의 그래픽카드 제조, 유통사들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받은 가격은 터무니없는 지경이고, (RTX) 5090뿐만 아니라 5060의 인상 폭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역시 “메모리 시장 전반에 걸쳐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 결정권은 여전히 공급업체들이 쥐고 있다”며 “D램과 낸드 계약 가격 상승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대형마트,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줄인다

롯데마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홈플러스 ‘히트상품 위크’

대형마트 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식료품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커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밤상 물가 안정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29일부터 제주산 ‘상생 무’를 개당 990원에 판매한다. 이는 기후 영향으로 작황 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미세한 상처가 있는 제주 무 120t을 공동 매입해 일반 상품 대비 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며 1회 사용에 적합한 크기로 1~2인 가 구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상생 제주 한라봉·천혜향(각 1.5kg)’을 각각 9990원, 1만1990원에 판

매하며 팔기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2배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밤고구마(100g)’는 329원, ‘제주 당근(1.5kg)’은 30일부터 1월까지 4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수산 코너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한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물로는 한우 ‘마블나인 등급(1+)(9)등급·100g)’을 1만4980원에, 1등급 선별 브랜드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는 각각 1990원, 1290원에 판매한다.

또 설을 앞두고 ‘명절 상차림 온라인 사전예약’을 처음 운영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5일까지 ‘롯데마트 제타(ZETTA)’에서 명절 먹거리 5종을 최대 3000원 할인된 가격에 예약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은 2월14~16일 중 지정된 날짜에 배송된다.

홈플러스도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표 상품과 단독 상품들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 ‘홈플러스 히트상품 위크’를 진행한다.

또 압도적 품질과 가성비비를 자랑하는 홈플러스 PB 브랜드 ‘심플러스(simplus)’ 제품도 폭넓게 준비했다.

더불어 5일간의 검역과 위생 검사 후

세척·소독을 거친 ‘미국산 백색 신선란(30구/1인 2만 한정/서귀포점 제외)’을 이달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국내 마트 단독으로 한 판 599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과자와 만감류 ‘골라담기’ 행사를 열린다. ‘과자 무한 골라담기’는 2만5000원에 지정된 박스 2개에 과자를 개수 제한 없이 담을 수 있는 행사로, 맛동산·허니버터칩·오사프 등 인기 스낵 10종을 약 300만봉 규모로 준비했다. ‘만감류 7개 골라담기’는 천혜향·레드향·황금향 중 7개를 98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반값 수준이다.

신학과 명절 수요를 겨냥한 가구·가전 할인도 강화했다. ‘데코라인 플랜 침대세트(수퍼싱글)’는 동급 사양 상품 대비 70% 이상 낮은 가격에 고객들을 맞이한다. 학생 인증 시 맥북 에어 M4, 아이패드 에어 M3 등 애플 제품에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라젼·바디프렌드·코지마 등 안마의자는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최대 120만원 할인된다.

이와 함께 TV, 음식물 처리기, 무선 청소기 등 인기 가전과 캠핑 이열 상품도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 판매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탈리아 발사믹 명가 만나다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발사믹 브랜드 ‘주세페루스티’ 상품을 선보였다.

한국 대중음악, 해외 진출 기반 다졌다

콘진원, 태국 방콕뮤직시티 성향...협업논의 등 상당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뮤직시티 2026’에서 한국 대중음악 쇼케이스 프로그램 ‘코리아 스포트라이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태국 대표 음악 마켓과 연계해 2년 연속 추진된 공식 프로그램으로 국내 유망 뮤지션 5팀이 참가해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검증받았다. 콘진원은 쇼케이스 운영과 함께 비즈니스 미팅, 네트워킹 지원을 병행해 단순 공연을 넘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무대에는 Milena, SHAUN, Animal Divers, 0WAVE, 87DANCE 등 총 5팀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글로벌 음악산업 관계자와 관객 3800여명이 몰리며 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손과 영웨이브는 2000석 규모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대형 공연을 소화하며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공연 이후에는 해외 페스티벌 초청, 협업 논의 등 후속 비즈니스 상담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조환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교통가족들은 행복한 동행의 시작!

부강한 우리를 위한 기회
전남광주특별시를
적극 지지합니다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개인(유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광주교통경제인협의회